

2007 새로운 설렘을 기대하며...



작년 봄 '한그루녹색회'에서 보내 온 '푸른숲선도원 활동 학교 지원 계획서'를 접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 자연 체험학습과 우리나라 자생식물에 관심이 많아 계발활동 부서인 '숲과 친구부'를 운영해 오면서 아이들과 함께 꼭 한 번 갖고 싶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작년 8월,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도 아이들과 함께 너무도 신나는 하루를 숲과 수목원에서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보는 동충하초에 신기해하고, 책이나 TV를 통해서만 보았던 근사한 망태버섯에 감탄하던 모습, 거대한 규화목이 반겨주던 산림박물관, 숲 속 친구들을 만나러 갔던 오솔길,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만들었던 목걸이, '유전자 보존원'에서 느꼈던 우리 것의 소중함, 독특한 향과 맛을 내는 여러 허브 체험 등 참석한 아이들과 인솔한 교사 모두에게 그날은 무척이나 즐겁고 신났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들꽃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강인한 생명력, 어떤 인공의 힘으로도 흉내내지 못할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숲을 2007년에도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하나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글 / 조 영 아(청란여자중학교 교사)